

석가모니의 지혜

석가모니가 제자와 길을 가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, 건달들이 못된 욕을 했다.

그런데 석가모니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노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.

그러자 제자가 물었다.

“스승님, 그런 욕을 듣고도 웃음이 나오십니까?”

“이보게~, 자네가 나에게 금덩어리를 준다고 하세. 그것을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지만, 안 받으면 누구 것이 되겠나?”

“원래 임자의 것이 되겠지요.”

“바로 그걸세. 상대방이 내게 욕을 했으나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원래 말한 자에게 돌아간 것일세. 그러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.”